



처인성의 빛나는 밤 (초등 4단계)

단비어린이 | 신은영 글 / 정수 그림



표지 탐색하기

※ 『처인성의 빛나는 밤』을 읽기 전에 책의 제목과 표지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1) 앞표지에 그려진 인물들과 표정, 행동, 배경이 되는 장소 등을 살펴본 뒤, 표지에 대한 첫인상과 느낌을 적어보세요.

①	왼쪽 소녀	
②	오른쪽 소녀	
③	제목에 대한 느낌	

2) 앞표지에 그려진 두 아이는 현재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까요? 자유롭게 상상하여 적어보세요.

↳

3) 아래의 글은 뒤표지에 실린 글입니다. 글을 읽고 ㉠처인성 전투의 특징을 찾아 적어보세요.

**세계 최강 10만 몽골군의 침략을
모두가 하나 되어 이겨 낸 위대한 전투**

몽골제국에 맞서 천민을 비롯한 백성들과 승려들이 힘을 합쳐 승리를 이끌어 냈다는 것은 역사상 참으로 놀랍고 대단한 일이에요. 흠으로 만든 토성이라는 열악한 조건에서 몽골제국을 상대로 이긴 전투임은 물론, 천민 거주지였다는 점도 인상 깊은 대목이지요. 뿐만 아니라 몽골군 총사령관을 사살함으로써 몽골군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린 전투이기도 했고요. 결국 ㉠처인성 전투는 고려 백성들의 강인한 정신력을 보여준 위대한 전투라고 할 수 있어요.

↳



처인성의 빛나는 밤 (초등 4단계)

단비어린이 | 신은영 글 / 정수 그림



어휘력 쑥쑥 키우기 ①

1) 다음은 『처인성의 빛나는 밤』에서 발췌한 단어입니다. 단어와 그 뜻을 바르게 연결하세요.

① 살갑다	•	•	㉠ 사물을 어림잡아 헤아리다
② 가늠하다	•	•	㉡ 못마땅하거나 시답지 아니하여 불쑥 하는 말이나 태도에 무뎉뎉한 기색으로
③ 익살스럽다	•	•	㉢ 작은 구멍이나 틈 사이로 아주 조금만 보이는 모양
④ 빼꼼히	•	•	㉣ 마음씨가 부드럽고 상냥하다
⑤ 통명스럽다	•	•	㉤ 남을 웃기려고 일부러 우스운 말이나 행동을 하는 데가 있다

2) 『처인성의 빛나는 밤』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무령이는 활만 챙겨 획 돌아섰다. 당황한 헤령이 뺨이 붉게 물들어 갔다. 눈물이 차 올라 무령이 뒷모습도 잘 보이지 않았다. 억울한 듯, 아쉬운 듯 그렇게 마음이 아려왔다. ㉠영킨 실타래를 아무리 풀어 보려 애써도 실타래는 보기 좋게 더 엉켜 버리고 말았다. 덩그러니 혼자 남겨진 헤령이는 친구가 챙겼다면 설레던 순간이 꿈인가 싶었다.

윗글에서 ㉠과 같은 상황에 빠진 헤령이에게 도움이 될 만한 속담을 골라보세요.

- | | |
|----------------------|-----------------|
| 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 ②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
| ③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 ④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



처인성의 빛나는 밤 (초등 4단계)

단비어린이 | 신은영 글 / 정수 그림



어휘력 쑥쑥 키우기 ②

1) 다음에 제시된 낱말 카드를 사용하여 아래의 문장을 완성해보세요.

느닷없이

부라리며

팽팽하게

가뿐하게

자근자근

- ① 혜령이는 어찌할 바를 몰라 손톱을 깨물어 대고 있었다.
- ② 활시위를 당긴 길상이를 보고 있자니 무령이 뱃속이 당겨졌다.
- ③ 그런데 길상이 녀석이 자세를 잡더니 획 돌아섰다.
- ④ 그동안 혜령이도 무령이에게 열심히 배웠기에 명중시켰다.
- ⑤ 그러자 더 화가 솟구친 길상이가 눈을 매섭게 쏘아보았다.

2) 무작위로 섞인 다음 단어들을 순서대로 정리하여 올바른 문장으로 적어보세요.

석양이

빠는

꼬리를

시간

길게

주변을

삼켰다

어둠이

반쯤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3) 다음 중 ‘스몐다’가 ㉠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을 고르세요.

엄마 얼굴에 우울한 빛이 ㉠스몐다.

- ① 달리기를 했더니 땀이 옷에 스몐다.
- ② 고깃집의 기름 냄새가 코에 스몐다.
- ③ 스펀지에 물이 스몐다.
- ④ 아이의 눈빛에 희망의 기운이 스몐다.



처인성의 빛나는 밤 (초등 4단계)

단비어린이 | 신은영 글 / 정수 그림



테마 탐색하기

※ 『처인성의 빛나는 밤』은 우리 역사에서 고려 시대 몽골의 침입에 대하여 큰 승리를 얻은 '처인성 전투'를 다룬 작품입니다. 아래 표에서 오른쪽 칸에 제시된 단어를 참고하여 각 빈칸을 채워보세요.

몽골제국과 처인성 전투(1232년)		
★ 처인성 전투란?	고려 1232년, 몽골군의 침입에 대하여 처인성(용인)이 승리한 전투.	
① 몽골제국의 탄생	대초원 지대였던 몽골은 1206년 ()이 여러 부족을 통일함으로써 비로소 ()이 되었다.	제국 칭기즈칸
② 원나라	칭기즈칸을 이어 그의 손자 ()가 몽골제국의 이름을 ()으로 바꾸고 중국 대륙을 통치하였다.	원 쿠빌라이
③ 몽골제국의 고려 공격	몽골제국은 1231년부터 1259년까지 총 ()에 걸쳐 고려를 공격. 고려는 수도를 ()로 옮기고 몽골군의 공격에 대비. 몽골은 끊임없이 고려를 괴롭히고 무리한 ()을 바칠 것을 강요하였다.	조공 강화도 6차례
④ 처인성 전투	처인성은 고려 시대 ()들의 거주하였던 부곡 지역에 있던 산성. 1232년 몽골군이 고려를 ()했을 때, 처인성에서 백현원의 김윤후 승장이 쓴 ()에 몽골의 총사령관 ()가 전사했다. 적장의 우두머리를 제거하여 승리를 이끈 김윤후 승장은 이후 ()에 임명되었다.	화살 상장군 살리타이 천민 2차 침입
⑤ 처인성 전투의 의의	몽골군에 맞서 천민을 비롯한 백성들과 승려들이 힘을 합쳐 승리를 이끈 처인성 전투는 역사상 놀랍고 대단한 전투였다. 처인성은 ()이며, 흙으로 만든 ()이라는 열악한 조건에서 대몽골제국을 상대로 승리했다. 처인성 전투는 ()들의 강인한 정신력을 보여 준 위대한 전투다.	고려 백성 토성 천민거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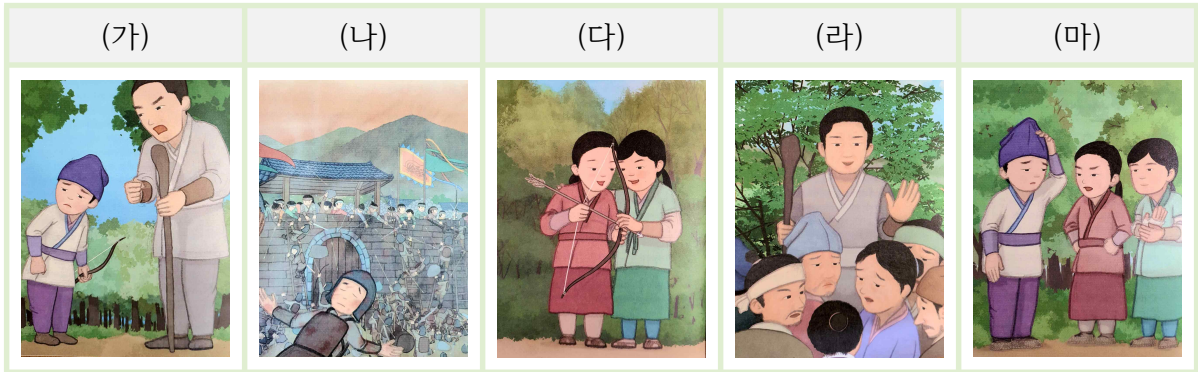
처인성의 빛나는 밤 (초등 4단계)

단비어린이 | 신은영 글 / 정수 그림



독해력 쑥쑥 키우기 ①

※ 『처인성의 빛나는 밤』에서 발췌한 다음 장면들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1) (가)~(마)에는 무령이와 혜령이가 처인성에서 전투를 치르기까지의 과정이 무작위로 섞여 있습니다. (가)~(마)를 시간 순서에 따라 나열해보세요.



2) 위 1)에서 나열한 순서대로 각 장면의 줄거리를 다음 표에 정리해보세요.

순서	기호	내용
①		
②		
③		
④		
⑤		



처인성의 빛나는 밤 (초등 4단계)

단비어린이 | 신은영 글 / 정수 그림



독해력 쑥쑥 키우기 ②

※ 『처인성의 빛나는 밤』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그런데 농사만 짓는 양민이 활쏘기는 언제 익힌 거야?” “어? 그럼 넌 농사짓는 양민인 거야?” 서로 공평하게 하나씩 질문을 주고받은 둘 다 놀란 얼굴로 잠시 그대로 서 있었다. ㉠“아, 미안해. 활쏘기나 계속하자. 힘을 모아 몽골군을 물리치면 되는 건데 말야. 그치? 아참! 전쟁이 끝나면 우리 충주성에 초대할게. 가을걷이가 끝나면 먹을거리가 넘쳐나니 널 위한 근사한 요리도 해줄 수 있을 거야.” 서늘한 분위기를 바꿀 요량으로 혜령이가 말했다. “천민은…… 어디도 갈 수 없어…….” 무령이 시선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또다시 침묵이 흘렀다.

(나) 길상이가 움찔하더니 이내 표정을 가다듬는 것이 보였다. “야! 너희 아버지나 너 나 뛰어난 궁사잖아. 이까짓 화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면서 뭘 그래?” “이까짓 화살을 넌 왜 흠쳐 가는데?” “그야…… 내가 만든 화살은 아무리 해도 네 것보다 멀리 가지 않으니깐. 나도 처음엔 딱 하나만 가져갈 생각이었어. 네 것과 똑같이 만들려고 말이야. 근데 눈앞에 한가득 쌓여 있잖아. 그러니 순간 욕심이 생긴 거지 뭐. 그렇다고 도둑이라고 할 것까진 없잖아!” 뭐가 그리 당당한지 길상이는 목을 길게 빼며 우겨 댔다. ㉡“남의 것을 가져간 게 도둑이 아니면 뭐야?” “첻! 천민주제에 나더러 도둑이라고? 처인성에서 나고 자란 너 같은 천민이랑 나는 달라! 우리 가족은 원래 아랫마을에서 대대로 농사를 짓던 양민이란 말야. 억울하게 이곳에 오게 되었지만, 별레만도 못한 천민은 아니야! 그러니 너랑 같은 천민 취급하지 마! 알겠어?”

1) (가)와 (나)에서 알 수 있는 고려 시대의 천민과 양민에 대해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 ① 지희 : 고려 시대의 천민은 자유롭게 돌아다닐 행동의 자유가 없었어.
- ② 준수 : 고려 시대의 양민은 활쏘기를 배울 수 없었어.
- ③ 채원 : 고려 시대의 처인성은 주로 천민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었어.
- ④ 유진 : 고려 시대의 양민은 물건을 훔쳐도 벌을 받지 않았어.

2) (가)의 ㉠과 (나)의 ㉡은 천민 무령이 양민 혜령, 길상과 나눈 대화입니다. 각각의 대화에서 무령이는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 무령이 혜령에게 느낀 감정	㉡ 무령이 길상에게 느낀 감정



처인성의 빛나는 밤 (초등 4단계)

단비어린이 | 신은영 글 / 정수 그림



사고력 쑥쑥 키우기 ①

※ 『처인성의 빛나는 밤』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그런데 길상이 녀석이 자세를 잡더니 느닷없이 획 돌아섰다. 그리곤 팔을 뒤로 뻗어 냉큼 활을 쏘았다. 명중이었다. 뒤로 쏘는 것은 무령이도 해 보지 않은 일이라 내심 크게 놀라고 말았다. “길상이, 네 이놈! 지금이 묘기 부리는 시간인 줄 아느냐!” 윤후 스님의 목소리에 언짢은 기색이 역력했다. 방금까지 의기양양하던 길상이 얼굴이 금세 딱딱하게 굳었다. (중략) ㉠“다시 한 번 훈련에 묘기를 부린다면 너는 더 이상 활잡이를 못 할 것이다! 알겠느냐?”

1) 윗글에서 윤후 스님이 길상에게 ㉠과 같이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

2) 다음 그림과 글을 참고하여 각 장면에 담긴 눈물의 의미를 적어보세요.

	“무령아! 몽골군이 왔다는구나. 그러니까 열심히 싸우되 절대로… 절대로 다치거나 하면 안 된다. 알겠지? 으흐흐. (중략) 엄마가 걱정하는 건 우리 무령이… 너뿐이야. 흐흐. 놈들을 물리치고 우리 꼭 살아서 다시 만나야 해. 엄마 마음 알지?”	㉠ 무령 엄마의 눈물
	우두머리를 잃은 몽골군이 뿌연 흙먼지를 남기고 삽시간에 멀어져 갔다. 처인성 사람들은 모두 서로 부둥켜안고 울기 시작했다. 혜령이도 길상이도 가슴의 응어리를 토해내듯 서럽게 소리 내어 울었다. 강인한 눈빛의 윤후 스님마저 조용히 울고 또 울었다.	㉡ 처인성 사람들의 눈물



처인성의 빛나는 밤 (초등 4단계)

단비어린이 | 신은영 글 / 정수 그림



사고력 쑥쑥 키우기 ②

※ 『처인성의 빛나는 밤』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무령아, 오늘은 왜 활쏘기 하러 안 가니?” “그냥, 좀 있다 갈 거야. 근데 엄마! 우리 같은 천민이 양민이 될 방법은 없어? 죽을 때까지 천민으로 살아야 하는 거야?” 엄마가 대답을 찾는 듯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글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니 잘 모르겠구나. 처인성 밖 사람들을 또 만난 거야? 누가 또 벌레 같은 천민이라며 널 놀렸나 보구나.” 엄마 얼굴에 우울한 빛이 스쳤다.

(나) “활잡이가 많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니 내 기꺼이 허락하마. 그럼 너희 둘은 활쏘기를 맡도록 해라.” 무령이는 혜령이가 기특하고 고마웠다. 당차게 말한 것도 멋진 일인데, 무령이를 신궁이라 칭해 준 것에 적잖이 감동한 것이다. “계집애들은 활쏘기에 방해만 된다고요. 그냥 돌이나 주워 모으라고 하세요!” 길상이 녀석이 툭 내뱉었다.

1) (가)와 (나)에서 무령이와 혜령이는 각각 차별과 편견에 부딪힙니다. 무령이와 혜령이가 부딪힌 차별과 편견은 어떤 것이었나요?

		(가)에서	(나)에서

2) 무령이와 혜령이는 각자가 가진 능력과 방법으로 차별과 편견에 대항합니다. 무령이와 혜령이가 대항한 방법을 적어보세요.

		능력	방법
(가)	무령이		
(나)	혜령이		



처인성의 빛나는 밤 (초등 4단계)

단비어린이 | 신은영 글 / 정수 그림



표현력/창의력 쑥쑥 키우기

1) 『처인성의 빛나는 밤』은 고려 시대 처인성에서 살았던 무령이와 혜령이라는 두 소녀가 활쏘기를 통해 자신을 지키고, 마을 사람들을 지키고 더 나아가 나라를 지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이라면 무엇으로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능력을 키울 수 있을지 자유롭게 적어보세요.

⇒

2) 무령이와 혜령이는 전쟁을 앞두고, 또 전쟁이 지나간 후 풍등을 날리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풍등을 날린다면 어떤 소원을 적고 싶은가요? 아래 빈칸에 무령이처럼 지금 여러분이 지키고 싶은 것에 대한 소원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혜령이처럼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소원을 적어보세요.



[지금 지키고 싶은 것에 대한 소원]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소원]



『처인성의 빛나는 밤』 (초등 4단계) 정답과 해설

1쪽	<p>1) (예) ①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보는 표정으로 보아 뭔가 기도를 하는 것 같다. ② 한 쪽 손을 들고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 행동이 밤하늘에 뜬 풍등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다. ③ 밤하늘에 가득한 풍등으로 빛나는 밤을 말하는 것 같다. 희망찬 느낌이 든다.</p> <p>2) (예) 밤하늘의 풍등이 높이 날아올라 소녀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대화를 하고 있을 것 같다.</p> <p>3) (예) 흠으로 만든 토성인 처인성에서 전문 군인이 아닌 천민과 승려와 백성들이 힘을 합쳐 승리한 전투.</p>
2쪽	<p>1) ①-㉠ / ②-㉡ / ③-㉢ / ④-㉣ / ⑤-㉤</p> <p>2) ②</p>
3쪽	<p>1) ① 자근자근 / ② 팽팽하게 / ③ 느닷없이 / ④ 가뿐하게 / ⑤ 부라리며</p> <p>2) 석양이 길게 꼬리를 빼는 시간 / 어둠이 주변을 반쯤 삼켰다. 3) ④</p>
4쪽	<p>① 칭기즈칸 / 제국 ② 쿠빌라이 / 원 ③ 6차례 / 강화도 / 조공</p> <p>④ 천민 / 2차 침입 / 화살 / 살리타이 / 상장군 ⑤ 천민거주지 / 토성 / 고려 백성</p>
5쪽	<p>1) (다) -> (라) -> (가) -> (마) -> (나)</p> <p>2) ① (다) (예) 무령이가 혜령이에게 활을 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다.</p> <p>② (라) (예) 스님이 몽골군이 고려를 침입했다는 소식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에 대처할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p> <p>③ () (예) 길상이가 활쏘기 훈련 중에 묘기를 부리듯 활을 쏘아서 스님이 훈계를 하고 있다.</p> <p>④ (마) (예) 길상이가 그동안 무령이와 혜령이에게 저지른 잘못을 사과하고 있다.</p> <p>⑤ (나) (예) 처인성 사람들이 처인성을 침입한 몽골군에 맞서 싸우고 있다</p>
6쪽	<p>1) ①, ③</p> <p>2) ㉠ (예) 혜령이가 자신과 같은 천민이 아니라 양민인 것을 알고 당황하고 의기소침해졌다.</p> <p>㉡ (예) 길상이가 화살을 훔친 도둑이면서 되려 무령이를 천민이라고 무시하는 태도에 화가 났다.</p>
7쪽	<p>1) (예) 목숨을 건 전투를 앞둔 훈련시간에 길상이가 장난치듯 묘기를 부려서</p> <p>2) ㉠ (예) 몽골군과의 전투에서 무령이나 가족들이 다치거나 죽어서 다시는 만나지 못할까 봐 불안하고 슬픈 마음 ㉡ (예)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몽골군을 물리쳤지만, 큰 전투에서 승리한 기쁨과 죽어간 마을 사람들에 대한 슬픔이 뒤섞인 것</p>
8쪽	<p>1) (가) 천민 (신분차별) / (나) 여성 (성차별)</p> <p>2) (가) (예) 활쏘기 / 천민이지만 전투에서 활을 쏘아 자신과 가족과 처인성 사람들을 지키는데 힘을 보탰다.</p> <p>(나) (예) 활쏘기 / 어린 여성이지만 훈련을 통해 근육과 체력을 키워 어엿한 궁사가 되어 전투를 치렀다.</p>
9쪽	<p>답안 생략.</p>